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윤준채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 논문은 제56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토론해 주신 서울대학교 민병곤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I. 들어가며
- II.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
- III. 연구 방법
- IV. 결과 분석 및 논의
- V. 나가며

I. 들어가며

독립적인 모국어 교육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국어 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연구방법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한 모국어 교육 연구물을 효과적으로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의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연구 방법론 강좌를 필수 혹은 선택으로 지정하여 박사과정 학생에게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텔러웨이 대학의 ‘문식성 교육 프로그램’은 박사과정 학생에게 양적 연구방법론 3학점, 질적 연구방법론 6학점, 고급 연구방법론 6학점(질적 · 양적 관계없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언어 · 교육 · 사회 프로그램’도 질적 · 양적 연구방법론에 관계없이 9학점을 연구방법론 최소 이수 학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사하게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학습 · 문식성 · 테크놀로지 프로그램’도 박사과정 학생에게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최소 12학점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질적 연구방법론 기초(3학점), 양적 연구방법론 기초(3학점), 질적 연구방법론 심화(3학점), 양적 연구방법론 심화(3학점)가 이에 포함된

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박사과정 학생에게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9~12학점 정도를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독립적인 국어교육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도 국어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연구방법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연구 방법을 적용한 국어교육 연구물을 효과적으로 소비하고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서, 우리의 국어교육 프로그램도 박사과정 학생에게 연구방법론 관련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교원대학교 초등 국어교육 프로그램은 박사과정 학생에게 초등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3학점을, 국어교육 프로그램은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 3학점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국어교육 프로그램도 박사과정 학생에게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3학점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어교육 프로그램도 박사과정 학생을 위하여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3학점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프로그램은 국어교육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강좌를 필수과목 혹은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국어교육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교육적 현실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국어교육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노력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박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박사과정 학생에게 최소 3과목(9학점)의 연구방법론 수업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체로 1과목(3학점) 정도를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연구방법론적 교육적 현실은 너무나 부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국어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국어교육 연구자의 연구방법론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작지 않다.

예를 들어, 1991~2000년까지 10년 동안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연구』에 실린 연구물에 대한 분석(천경록, 2001)에 따르면, 총 219편의 연구 논

문 가운데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물은 15편(6.8%),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물은 20편(9.1%),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한 연구물은 7편(3.2%), 그리고 개념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물은 177편(80.8%)이었다. 이것은 국어교육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어교육 연구자가 사용한 연구 방법이 특정한 연구 방법에 편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문헌 연구 방법만을 의존하여 국어교육 현상을 규명하려는 우리 국어교육 연구의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것은 마치 닭 잡는 칼로 소 잡으려는 형국과 다르지 않다.”(윤준채 · 이형래, 2007: 375)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어교육을 연구하는 데 있어 연구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한 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인식 부재와 교육 소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최초로 개설된 국어교육 박사과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박사과정 프로그램 또한 국어교육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1과목(3학점)만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최근에 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박사과정을 마쳤거나 현재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을 탐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론 교육의 실질적 수요자인 국어교육 연구자가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국어교육 양적 연구 방법

국어교육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어교육 연구자가 사용해 왔던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두 가지로 범주화하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양적 연구는 현상의 기저에 있는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현상을 측정하여 양적 자료로 나타내고 통계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방법이다. 대체적으로 양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직선적인 연구 과정에 따라 수행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질적 연구는 현상을 통제하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관찰과 면접을 통해 현상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순환적인 연구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현상을 관찰(면접)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다시 현상을 관찰(면접)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회귀적인 과정을 따른다. 여기에서는 국어교육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양적 연구 방법, 즉 실험연구, 상관연구, 조사연구, 인과비교연구, 메타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1. 실험연구

실험연구(experimental research)란 통제된 상황에서 독립변수를 조작하고 외생변수(extraneous variable)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것은 양적 연구 방법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인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 즉 외생변수를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연구 방법이다. 대체로 실험연구는 실험 처치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진

행되며 실험 설계 방법으로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 등이 있다. 아울러 자료 분석(통계적 검증) 방법으로는 변량분석(t 검증 포함)과 다변량 분석 등이 적용된다. 국어교육 영역에서 실험연구 방법을 적용한 초기 연구물로는 「독서에서의 교수 방법이 독서 전략 형성에 미치는 효과」(노명완, 1975)가 있다. 이것은 독서 지도 방법이 읽기 전략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해 발음중심 지도 방법과 의미중심 지도 방법을 비교한 연구이다.

2. 상관연구

상관연구(correlational research)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 패턴이나 경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연구”(김석우 · 최태진, 2007: 300)이다. 즉, 현상의 기저에 있는 변수에 대한 통제 없이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여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언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실험연구와는 달리 변수 간의 명료한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변수 간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에 대한 어떤 가능한 함의를 얻기 위해 수행된다(Fraenkel, Wallen & Hyun, 2012). 대체로 상관연구는 상관 계수(r) 혹은 결정 계수(R^2)라는 지수를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예언하며, 자료 분석(통계적 검증) 방법으로는 상관분석, 회귀 분석, 공변량 구조분석 등이 적용된다. 국어교육 영역에서 상관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물에는 「국어 영역 간 성취도의 상관관계 분석」(이재기, 2005)이 있는데,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의 하위 영역인 듣기, 읽기, 쓰기, 문학, 국어지식에서의 성취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3. 조사연구

조사연구(survey research)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을 통하여 사회학적 변인과 심리학적 특성 변인들(예컨대, 연구 대상자들의 신념, 관심사, 태도, 행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는 연구”(김석우·최태진, 2007: 278)를 말한다. 즉, 사회적 이슈나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 방법이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구센서스나 킨제이 보고서 등이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일반적으로 조사연구는 질문지나 면접을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빈도, 퍼센트,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여 현상을 요약·기술하거나 추론하기 위해 수행된다. 국어교육 영역에서 조사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물로는 「독자의 정의적 영역 발달: 초등학교의 여가 및 학습 읽기 태도를 중심으로」(윤준채, 2007)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진급하면서 나타내는 읽기 태도의 부적 발달 양상을 밝혀냈다.

4. 인과비교연구

인과비교연구(causal comparative research)란 “독립변인이 이미 명확하거나 본질적으로 조작 불가능하여 연구자가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체계적·경험적 연구”(박도순, 1993: 32)를 말한다. 즉,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집단 간에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을 사건이 발생한 후에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Fraenkel 외, 2012). 이 연구방법은 사후연구(Ex Post Facto Research)로도 불리는데, 통제하지 않은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상관연구와 유사하지만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실험연구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은 외생변수를 효과적으로 통

제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변수 간에 존재하는 인과적 관계를 명료하게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인과비교연구는 집단의 평균(표준편차)에 대한 통계적 추리 과정을 통해 모집단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수행되며, 자료 분석(통계적 검증) 방법으로는 변량분석(t 검증 포함)과 다변량 분석 등이 적용된다. 국어교육 영역에서 인과비교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물로는 「대학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글쓰기 양상 연구」(이명미, 2012)가 있는데, 이것은 대학생의 성격 유형과 글쓰기 특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5. 메타분석

국어교육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어교육 연구자가 사용하는 경험적인 연구 방법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메타분석(meta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Fraenkel 외, 2012). 메타분석은 이미 수행된 다수의 1차 연구물을 효과 크기(effect size),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를 두 집단의 통합된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선행 연구를 가로지르는 처치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Rosenthal, 1984). 양적·질적 연구가 1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라면 이것은 1차 연구를 메타적인 시각으로 통합하는 연구, 즉 ‘연구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적용되는 연구 방법이다. 메타분석이 선행 연구에 대한 2차 연구 방법이기는 하지만, 연구의 과정이 양적 연구와 유사하게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특성을 가진 것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국어교육 영역에서 메타분석을 적용한 연구물로는 「요약하기 전략 지도가 독해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적 접근」(윤준채, 2009)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읽기 이해를 촉진시키는 데 요약하기 전략 지도가 효과적임을 밝혀냈다(평균 효과 크기: .92).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37명의 피험자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의 국어교육 박사과정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혹은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수료했거나 박사과정 중에 있는 국어교육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박사과정은 1986년에 설치되었으며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초등국어교육과 국어교육을 하위 프로그램으로 두고 있는데 1986년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여 1987년 박사과정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고려대학교의 국어교육 프로그램은 2000년 교과교육학과와 하위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여 2008년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프로그램으로 독립하였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어교육 프로그램은 2009년 석사과정으로 출발하여 2011년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표 1. 세부 전공에 따른 연구 참여자

세부 전공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한국어	기타
사례수	2명	10명	13명	3명	6명	2명	1명
계	37명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37명 국어교육 연구자의 세부 전공은 화법교육 2명, 독서교육 10명, 작문교육 13명, 문법교육 3명, 문학교육 6명, 한국어교육 2명, 기타(교사교육) 1명이었다. 아울러, 37명의 피험자 가운데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는 9명,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는 11명,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는 17명이었다.

2. 설문지 및 자료 수집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국어교육 연구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인식〉이라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즉 연구자가 양적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수강했던 과목, 앞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양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의 어려움 등을 측정하는 1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8번 문항은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지에서 고르도록(중복 허용), 9~16번 문항은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그리고 개선점을 묻는 마지막 문항에는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하였다.

표 2.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인식〉 설문지 문항 예시

13. 선생님은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국어교육 관련 논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료 수집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혹은 수료했거나 박사과정 중에 있는 국어교육 연구자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2014년 3월 초순에 이-메일로 배포되어 3월 중순에 이-메일로 수거되었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결과 분석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국어교육 연구자의 인식 분석에 따르면, 국어교육 연구자는 독립적인 국어교육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양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국어교육을 연구하는 데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37명 국어교육 연구자의 반응 평균은 4.73 점(5점 척도)이었다. 이것은 해당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반응한 것으로서 국어교육 연구자는 국어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데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양적 연구방법론 강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자신의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국어교육 연구자에게 필요한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2.48점)라고 반응하여, 연구자는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강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3. 양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 및 제공의 정도(N=37명)

문항	점수(5점 척도)
양적 연구방법론의 필요성	4.73점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제공 여부	2.48점

이러한 까닭으로, 국어교육 연구자는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국어교육 연구자로서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연구자는 ‘보통이다’(2.54점)라고 반응하여, 대부분의 국어교육 연구자가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어교육 연구자는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논문을 이해하고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생님은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논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와 “선생님은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자의 반응 평균은 각각 3.60점, 3.95점이었다. 이것은 해당 질문들에 대해 ‘그렇다’라고 반응한 것으로서 국어교육 연구자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표 4.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N=37명)

문항	점수(5점 척도)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	2.54점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 이해의 어려움	3.60점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 수행의 어려움	3.95점

그런데 국어교육 연구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물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 방법 강좌를 수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표 5>는 “선생님이 석·박사과정 중에 수강하셨던 과목을 모두 고르십시오.”라는 문항에 대한 연구자의 응답 결과이다.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설문에 응답한 연구자의 대부분은 ‘(국어교육) 연구방법론’을 수강하였고 ‘기초통계학’을 수강한 연구자도 절반 정도 되었다. 하지만 ‘변량분석, 회귀분석, 다변량분석, 실험 설계, 공변

량 구조분석’ 등과 같은 보다 높은 단계의 양적 연구 방법을 수강한 연구자는 많지 않았다. 문제는 (국어교육) 연구방법론이나 기초통계학 강좌는 변량 분석, 회귀분석, 다변량분석, 실험 설계, 공변량 구조분석 등과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강좌를 듣기 위한 선수 과목에 지나지 않아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물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주기 어렵다는 데 있다.

표 5. 수강했던 과목(중복 선택)(정규 수업 및 학내 프로그램 포함)

과목	사례수(퍼센트)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32명(86.5%)
기초통계학	17명(45.9%)
변량분석	10명(27%)
회귀분석	10명(27%)
다변량분석	8명(21.6%)
실험 설계	10명(27%)
공변량 구조분석	1명(2.7%)
기타	4명(10.8%)

그렇다면 왜 국어교육 연구자는 양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 방법 강좌를 다양하게 수강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실마리는 “선생님은 석·박사과정에서 개설되는 양적 연구방법론 관련 수업(국어교육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등에서 개설되는 것을 포함)을 여러 과목 수강하지 않으셨다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2과목 이하 수강하신 선생님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29명의 연구자는 양적 연구 방법과 관련된 강의를 다양하게 수강하지 않은 이유로 ‘타과에서 개설되어 수강하기 불편하여(6명), 국어교육과에 개설되지 않아서(7명), 국어교육 전공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7명)’를 꼽았다. 기타로는 ‘선수 과목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분야가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해당 강좌의 담당자가 허락하지 않아서’ 등도 있었다.

표 6. 여러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이유(N=29명)

이유	사례수(퍼센트)
필요 없어서	2명(6.9%)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1명(3.5%)
타과에서 개설되어 수강하기 불편해서	6명(20.7%)
국어교육과에 개설되지 않아서	7명(24.1%)
필수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2명(6.9%)
국어교육 전공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	7명(24.1%)
교수님이 별로 추천하지 않아서	0명(0%)
기타	4명(13.8%)
계	29명(100%)

하지만 다양한 양적 연구 방법 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어교육 연구자는 여러 방식으로 양적 연구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7>은 “선생님은 양적 연구방법론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혹은 공부하실 계획입니까?(중복 가능)”라는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이다.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설문에 응답한 37명의 연구자 중에 24명이 ‘타과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를 찾아서’, 17명이 ‘학내에서 개설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2명이 ‘동료들과 스터디를 통해서’, 그리고 18명이 ‘혼자서 공부’라고 응답했다. 또한 ‘국어교육과에서 개설되지 않아 수강하지 않거나’ 혹은 ‘국어교육과에서 개설되는 것만을 수강한다.’라고 반응한 연구자도 각각 4명과 5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자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학내 단기 프로그램이나 동료 스터디 혹은 독학과 같은 보다 덜 체계적인 방식으로도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이러한 보다 덜 체계적인 학습 방식으로는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들 온전히 습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표 7. 양적 연구방법론 관련 공부 방법(중복 응답)

공부 방법	사례수(퍼센트)
국어교육과에서 개설되지 않아서 수강하지 않는다.	4명(4.3%)
국어교육과에서 개설되는 것만을 수강한다.	5명(5.5%)
다른 학과에서 개설되는 것도 찾아서 수강한다.	24명(26.4%)
학내외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예, 교내 연구소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7명(18.7%)
동료들과 스터디를 통해 공부한다.	22명(24.2%)
혼자서 공부한다.	18명(19.8%)
기타	1명(1.1%)

한편 국어교육 연구자는 “선생님은 석·박사과정에서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더 많이 수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4.52점)라고 반응하여, 국어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양적 연구 방법 강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필수 학점의 지정과 관련하여, “선생님은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 관련 과목(질적 연구방법론 제외)을 석·박사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면 몇 학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연구자는 3~9학점 정도가 적당하다고 반응했다.

〈표 8〉에 나타나 있듯이, 설문에 응답한 37명의 연구자 중에 1명은 ‘필요 없음’, 12명은 ‘3학점’, 14명은 ‘6학점’, 9명은 ‘9학점’, 1명은 ‘기타’로 반응했다. 특히 3~6학점을 필수 학점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응답자의 과반수(26명, 70.2%)를 넘어, 대부분의 국어교육 연구자는 현재 대부분의 석·박사

표 8.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경우 적당한 학점

필수학점	필요 없음	3학점	6학점	9학점	기타
사례수	1명 (2.7%)	12명 (32.5%)	14명 (37.8%)	9명 (24.3%)	1명 (2.7%)
계	37명(100%)				

프로그램이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3학점보다 더 많은 양적 연구 방법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논의

위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국어교육 연구자는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그것을 적용한 연구물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으로 양적 연구방법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연구 결과가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 교육 과정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자명하다. 우선,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 관련 이수 학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1과목(3학점)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양적 연구방법론 필수 이수 학점을 3~6학점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필수과목으로 ‘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국어교육 연구자가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물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다.

두 번째로,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학과(예, 교육학과, 심리학과, 통계학과 등)와의 협력을 통해 국어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데 보다 적합한 양적 연구 방법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국어교육 전공 교수가 ‘변량분석’이나 ‘회귀분석’과 같은 높은 단계의 양적 연구 방법을 가르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어교육 연구자가 양적 연구 방법 수업을 수월하게 수강하고 보다 국어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과(예, 교육학과, 심리학과, 통계학과 등)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양적 연구 방법론 수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국어교육 연구물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어교육 박사과정 프로그램의 졸업 이수 학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어교육 박사과정의 경우,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데 필요한 최소 졸업 학점을 36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예비 국어교육 연구자로 하여금 양적 연구방법론 6학점과 질적 연구방법론 6학점을 필수학점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면, 연구방법론 필수 학점이 졸업 학점의 33%를 차지하여 국어교육 전공과목을 충분히 수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어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국어교육 지식과 연구방법론 지식을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졸업 학점을 36학점에서 54학점 정도로 높여야 한다. 하지만 많은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2년 동안 졸업에 필요한 36학점을 채운 후에 휴학하고, 박사학위 논문이 거의 완성되면 다시 등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졸업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박사과정 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전공 강좌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방법론 강좌를 필요한 만큼 들을 수 있다.

V. 나가며

국어교육 개론서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명완 외(노명완 · 권경안 · 박영목, 1991)가 출간한 『국어과교육론』은 ‘현장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국어교육 현장의 개선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국어교육 문제에 대한 의사 결

정의 조건으로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1과목(3학점)만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했던 지난날의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우리의 교육적 현실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교육적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여전히 대부분의 국어교육 석·박사과정 프로그램은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1과목(3학점)만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교육 영역에서 최초로 출간된 연구방법론 저서인 『국어교육 연구방법론』의 지적은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국어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어교육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물이 생산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연구물들이 모두 높은 질적 수준을 가졌다고는 쉽게 단언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국어교육 연구 방법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체계화되지 못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한철우 외, 2012: 머리말).

지금이라도 우리의 국어교육 프로그램이 닭 잡는 칼로 소 잡는 연구자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어교육 연구 방법의 체계적인 정리와 친절한 안내는 국어교육의 내실화, 선진화를 위한 가장 큰 관건’(한철우 외, 2012: 머리말)이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은 2014. 4. 28. 투고되었으며, 2014. 5. 5. 심사가 시작되어 2014. 5.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석우 · 최태진(2006), 『교육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노명완(1975), 「독서에서의 교수 방법이 독서 전략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완 · 박영목 · 권경안(1991),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 박도순(1993), 『교육연구방법론』, 문음사.
- 윤준채 · 이형래(2007), 「문식성 교육 연구방법론: 실험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0, pp. 357-378.
- 윤준채(2007), 「독자의 정의적 영역 발달: 초등학생의 여가 및 학습 읽기 태도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17, 한국독서학회, pp. 229-259.
- (2009), 「요약하기 전략 지도가 독해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적 접근」,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pp. 213-229.
- 이명미(2012), 「대학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글쓰기 양상 연구: MBTI 성격 유형 중 감각 인식기능을 중심으로」, 『제10차 한국독서치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독서치료학회, pp. 35-59.
- 이재기(2005), 「국어 영역간 성취도의 상관관계 분석」,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pp. 115-146.
- 천경록(2001), 「국어교육 연구에서의 양적 연구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pp. 17-49.
- 한철우 외(2012),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박이정.
- Fraenkel, J. R., Wallen, N. E., & Hyun, H. H.(2012), *How to design and evaluate research in education*(6th ed.), Boston: McGraw-Hill.
- Rosenthal, R.(1984), *Meta-analytic procedures for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윤준채

이 연구의 목적은 국어교육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박사과정을 마쳤거나 현재 공부하고 있는 37명의 국어교육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며, 자료는 17문항으로 구성된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인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국어교육 연구자는 국어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데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는 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강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국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 필수 이수 학점으로 3~6학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독립적인 모국어 교육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국어 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어교육 석·박사과정 프로그램은 양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양적 연구방법론, 조사연구, 메타분석, 실험연구, 인식 연구

ABSTRACT

Researchers' recognition of research methodology for Korean education

Yoon, Jun -chae

The purpose of this survey study was to examine researchers' recognition of research methodology, especially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for Korean education and to provide some useful ideas necessary for rebuilding research-method related curriculum for the researchers in the area of Korean education.

For this study, 37 researchers from universities in Seoul were participated. In order to collect data, <Korean Researcher's Checklist for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as used.

Results from the study documented as follows. First, the 37 researcher thought that knowledge of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for Korean education is necessary. Second, their doctoral programs did not provide sufficient classes related to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us they experienced som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related research works and in doing research us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Finally, they thought that 3~6 credit hours for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 the area of Korean education should be required. For Korean education researchers to become independent researchers, curriculum related to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hould be restructured.

KEYWORDS Research methodology for Korean education,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urvey research, Meta-analysis